

한국인의 북한 관광의사와 북한 지역경제 효과*

South Korean Demand for Tourism in North Korea and the Impact of their Expenses on the North Korean Regional Economy

김미숙** · 성태영*** · 최은희**** · 최대식*****

Misuk Kim** · Taeyoung Seong*** · Eunhee Choi**** · Daesik Choi*****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how much Korean visits to North Korea have an impact on the North Korean regional economy. It estimates the demand for North Korean tourism via the border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nd South Korean expenses to be spent in North Korea. When asked if they are willing to visit North Korea within the next five years in case the pre-conditions of the visit to North Korea are satisfied, approximately 64.1% of the survey respondents indicated 'yes'. To estimate the demand, this research employed the analysis of purchase intention, popular in marketing, based on their willingness to visit. The annual demand for tourism was 4,136,361 persons. The average estimated expense per person is KRW 1,532,000 and the total annual expense is KRW 6,336.9 billion. Assuming that airfare is excluded from the total expense and the expense is made evenly in each tourist destination, the estimated amount to be spent in North Korea is KRW 2,838.7 billion per annum. The backward linkage effect of this expense on the North Korean regional economy is KRW 7,972.1 billion in total production inducement, KRW 2,619.4 billion in value-added inducement, and approximately 2,890,443 persons in employment inducement. The value-added inducement effect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7.6% of the North Korean nominal GDP in 2020. South Korean tourism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s the demand for North Korean tourism is likely to increase steadily due to the expected increase in overseas travel demand by Koreans, inter-Korean cooperation i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tourism infrastructure if conditions improve.

Keywords : North Korea-China or North Korea-China-Russia Border Regions, South Korean Tourism Demand for North Korea, Tourism Expense, Economic Spillover Effect of North Korea, Tour of Mt. Baekdu

*본 논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인 「북중 접경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두만강 유역 일대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보완한 것임.

**LH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균형연구실 연구위원(주저자: misuk@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균형연구실 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 연구위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균형연구실 연구위원(교신저자: cosmos00@lh.or.kr)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북한에게 관광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지역 개별관광¹⁾은 국제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근 외국인의 북한 관광은 COVID-19 이래로 중단된 상태이다. COVID-19 전에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COVID-19가 해결되었을 때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 관광이 재개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제재가 진행되는 중에도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지정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²⁾ 내 외국인 상대 온천의료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양덕온천지구는 2019년 말에 준공되었다. 백두산을 끼고 있는 삼지연시 개발은 2016년 시작되어,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 2021년 11월에 완공되었다. 백두산관광철도(혜산-삼지연 철길) 완공 등 삼지연시는 관광지로써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한 지역 중 하나이다(최대식, 2019: 45).

현재 한국인은 북한을 방문할 수 없지만, 남북한이 협의한다면, 북한 방문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남북한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면이라도 DMZ를 통과하여 방문하는 경로는 DMZ를 관할하는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제3국을 경유하여 접근하는 것이다. 한 때 우리정부는 대북 협력방안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접근하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관광수요가 없다면 정부가 제안한 제3국을 경유한 북한 관광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북한 관광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한국인의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관광 수요와 이에 따른 관광활동이 북한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 보는 것이다.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할 경우 2~3개국을 한번에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역사, 문화, 자연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경유 지역을 통과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보건 측면이나 법적 측면에서 가능해진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한국인의 북한관광이 북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북한으로서도 북·중 또는 북·중·러 지역을 경유하는 한국인의 북한관광을 수용할 유인이 적을 것이므로 수요의 크기와 관광활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북한 방문의사에 기초한 수요조사와 관광 지출이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북한 관광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 추정은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의한 북한 경제에 기여를 파악하여,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제3국을 경유한 북한관광은 경유지에 따라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경유하여 북한을 여행하는 경로를 말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백두산을 포함한 북한 북동부지

1) 북한지역 개별관광이란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관광희망자가 관광을 신청,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통일부(2020), "2020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 지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대규모 관광단지가 고층 건물들이 약 5.5km에 걸친 해안가를 따라 세워졌고, 건물 주변 도로들은 조경까지 끝낸 모습을 보이고 있다(신금선(2020.12.16.), "北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목표일 8개월 지나도록 '감감'", SPN 서울평양뉴스).

역, 그리고 이 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관광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북한 전역에 한정한다.

1.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은 수요추정 부분과 수요를 기초로 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두 가지이다. 관광수요 측정 단위로는 방문자수(number of visitors)를 사용한다. 방문자수란 체재기간이나 체재장소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외래 관광 통계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9~11).

첫 번째 연구방법인 수요추정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지역 방문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소비의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확률을 분석하는 구매의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구매의도 분석이란,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구매(사용)할 의향을 물어 도출한 추정치를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해 구매할 확률로 환산하는 방법이다(박흥수 외, 2005: 291). 한편, 관광수요예측에 많이 적용되는 방법으로는 계량적 기법, 정성적 기법, 결합기법 등이 있다. 적절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정량적인 방법을 우선한다(송운강·이혜진, 2018: 113). 다만, 한국인의 북한 관광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시계열모형이나 인과관계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북한지역 경제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해서는 설문응답자들의 관광지출 의향액을 기초로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규모를 추정함으로써,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 관광시 지출되는 비용이 북한의 산업 전 분야에 후방연관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한다.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투입산출(IO)분석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 산업구조를 이용하여 북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한 신동천 외(2014)의 투입산출표와 최지영(2015)이 추정하고 용유발계수 연구결과를 활용한다.

2. 선행연구

2.1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연구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되는 연구는 200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흥식(2002)은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육로관광으로 전환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수도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육로를 통한 남북관광 협력 사업을 수익성관점에서 분석하고 관광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금강산 방문객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방문하고 싶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백두산, 금강산, 개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정화(2010)는 북한의 관광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고 보고 제정 합영법(1984년),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1996년), 7.1조치 및 금강산관광지구법(2002년)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윤인주(2015)는 김정은 시대 관광산업 육성동향과 최근 관광실태 검토를 통해 북한의 관광산업 개방유형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안현영·김미경(2018)는 관광강좌수강생을 대상으로 남북한 관광협력을 위한 관광 ODA(공적개발원조) 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대비하여 관광 ODA를 통하여 남북한의 관광협력을 모색하였다. 이재형(2018)은 남북관광교류정책에 대한 인식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인식 등의 연구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는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관광객의 안전

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용석·최경은(2019)는 남북관광협력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남북관광협력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관광수요를 조사하였는데, 북한관광이 재개될 경우 응답자의 78.6%가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소득이 높거나 국내여행 경험이 많은 응답자일수록 북한관광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방문지역으로는 금강산, 백두산, 평양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수(2018)는 북한관광의 현황과 남북한 문화관광협력 전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문유진(2018)은 남북관광의 현황분석과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이해정·강성현(2020)는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 분석 및 관광정책 추진 여건과 현황 분석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북한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관련하여 장동석·고계성(2014)는 2006년과 2013년 시점 간 북한관광전문가들의 인식변화를 조사하였다. 남북교류에서 관광의 비중이 증가하고 남북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전망의 강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북한관광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기반시설 확충과 투자여건 개선을 꼽았다. 박근영 외(2019)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일관심도 및 북한인식이 긍정적인일수록 북한관광인식도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장동석(2018)은 통일의식이 강할수록 북한관광인식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은경·이승곤(2021)는 북한관광에 대한 지각된 위험성이 부정적이면 행동 의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북한관광에 대한 사전

지식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하였다. 노희경(2021)에 따르면 북한의 관광인프라, 이질문화, 활동의 매력성은 국내잠재관광객의 방문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호·이재형(2018)의 연구에서는 북한관광 상품 분석을 통해 선호 관광권 조사결과로 금강산, 평양, 백두산 관광권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2.2 관광수요 추정 및 파급효과 관련

북한지역관광수요를 추정하는 연구는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기보다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파급효과 추정은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1999)은 금강산관광사업에 따른 업종별 매출증가 효과의 남한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김홍식(2002)은 금강산관광객에게 면접조사를, 수도권 주민에는 전화면접조사를 하여 개성관광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도권지역에서 남북한 연계관광코스가 개설될 경우, 철로를 이용한 육로관광이 허용될 사업 1차 년도의 관광수요는 약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의 안정기에 접어드는 사업 7차 년도의 총 관광수요는 약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남한에 한정하여, 교통인프라 추정과 관광 지출에 의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남성욱 외(2004)는 2004년 하반기 입주가 시작되는 개성공단 개발과 함께 추진될 개성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개성관광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임진각 관광객방문자수에 여론조사에서 도출한 여건별 개성관광 의향자 비율을 곱해 개성관광수요를 추정하였다. 개성관광수요는 총 1,249,500명으로 도출되었다.³⁾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관광수입으로 74,970

3) 남성욱 외(2004: 259~260)의 연구에서는 개성관광에 대해 관광여건별로 1, 2단계로 구분하여 방문의사를 물은 후 두 단계를 합한 결과(3단계)를 보여주고 있음.

1단계 개성관광수요=년 간 임진각관광객수×0.7(설문결과 개성관광의향비율)×0.25(1차 수요자 비율)

2단계 수요는 0.25 대신 0.45(2차 수요자 비율)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1차 수요자는 개성관광 의향자 중 2004년과 개성공단 착공과 동시에 개성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자, 2차 수요자는 북한의 관광의지를 보고 난 후 방문하겠다는 응답자임.

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봉 외(2009)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남북교류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동해연안에서 남북한 협력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최우선순위 사업인 금강·설악산 연계관광의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남한, 북한 전체 및 남북강원도에서 파급효과 크기를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파급효과 분석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한 대비 북한의 주요산업 생산량의 비고를 통해 분석하였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남한의 1975년으로 가정하고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197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강원도가 남한의 강원도와 유사한 산업연관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남한 강원도의 I/O를 이용하여 남북강원도 전체를 분석하였다(김영봉 외, 2009: 69~70).

채중훈(2015)은 1998년부터 10년 간의 남북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광객의 소비지출은 7,378억원이며, 남한 경제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3,777억, 고용효과 8,969명으로 도출되었으며, 북한은 소비지출이 4,400억이며, 생산유발효과 7,378억, 고용효과는 4,323명으로 도출되었다.

관광과 별도로 남북경협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최지영, 2012; 신동천 외, 2014; 김형태 외, 2016; 신석하·김영준, 2018). 이 가운데 신동천 외(2014)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수출입자료, 산업생산에 대한 북한자체의 보도 등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최근의 북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와 북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평가하였다.

2.3 소결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남북관광교류협력과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여건을 분석하여 교류협력의 기반과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북한관광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통일의식이 강할수록 관광의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위험성이 부정적일 경우 관광의도가 낮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관광수요 추정 및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 중 수요를 추정하는 연구는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기보다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파급효과 추정은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방법론은 업종별 매출증가효과, 경제상황을 남한의 특정시기로 가정한 산업연관표 활용, 북한의 수출입 및 산업생산에 대한 북한 내부의 정보 및 기존 연구의 결과에 기반한 북한 산업연관표 추정 등 연구별로 상이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북한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차별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접 도달하는 관광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 경유한 접경지역 관광을 통한 북한 관광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설문조사의 방문의향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확률을 적용하여 수요를 추정한다. 셋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사이트 별로 수요와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코스를 구성하여, 각 코스별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하였다.

3. 관광수요조사 및 지출규모 추정

3.1 한국인의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 관광의향조사

3.1.1 조사 개요 및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Table 1)⁴⁾. COVID-19가 종식되고, 신변안전보장 및 한국인의 북한관광이 허용된 상황을 전제로 향후 5년 이내에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을 경유하는 북한 여행을 할 의향이 있는지, 5년 이내에 몇 회 방문할 것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본 연구의 공간범위에서 3개 관광코스를 구성하여 코스별 선호도, 여행기간, 지출액, 관광활동 등을 질문하였다.

Table 1. Survey Overview

Category	Contents
Survey Method	- Online (to show maps for questions containing geographical names)
Survey Target	- 1,000 men and women over the age of 20 in the country
Sampling	- Random sampling of population proportional allocation by gender and age
Survey Period	- March 15th to 28th, 2021 (2 weeks)

3.1.2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주요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8%와 49.2%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조사의 응답자 중 65세 이상은 없었는데, 온라인이라는 특성과 설문지에 그림(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고연령층의 접근 및 응답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여행의향과 관광활동

(1) 여행의향 여부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을 경유하여 북한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여행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64.1%가 여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2회로 나타났다. 북·중·러 접경지역 여행 의향 여부와 최근 10년 이내 해외여행 경험, 북·중·러 접경지역 여행 경험을 교차해서 확인한 결과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북·중·러 접경지역 여행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방문의향이 더 높았다. 특히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북·중·러 접경지역이 여행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방문의향이 더 높아 북·중·러 접경지역이 관광지로서 매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3, 4).

(2) 북한 방문시 여행희망 지역

향후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방문이 가능해질 경우, 여행(방문)하고 싶은 북한지역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결과, '백두산(동파)'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삼지연사' 18.7%, '칠보산' 14.8%, '나선시(나진·선봉)' 1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5). 백두산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신용석·최경은(2019)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3) 여행하고 싶은 이유

향후 5년 이내 북·중·러 접경지역을 여행(방문)하겠다고 한 응답자들에게 방문이유를 개방형으로 물어보았다.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 '경치 및 경관에 대한 호기심(백두산 경관 포함)', '북한에 대한 관심', '우리 민족의 역사 흔적을 방문해보고 싶다' 등으로 응답하였다. 호기심 등이 북한 방문 동기로 나타났다는데, 노희경(2021: 57)의 관광객 개인이 가지는 내적 동기 중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북한의 관광시설, 관광 서비스업, 관광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4) 본 조사에서 활용한 표본은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전국 150만여 명의 패널에서 추출한 것이며,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임.

Table 2. Respondents' Characteristics

Category		Number of Cases (persons)	(%)	Category	Number of Cases (persons)	(%)
Gender	Male	508	50.8	Professional/ Technical	167	16.7
	Female	492	49.2	Education/ Administration/ Office/Management	286	28.6
Age (years old)	20 ~ 29	200	20	Sales/Service	102	10.2
	30 ~ 39	202	20.2	Production/ Transport/ General Labor	64	6.4
	40 ~ 49	240	24	Agriculture/ Fishery industry	8	0.8
	50 ~ 59	248	24.8	Self-Employment	92	9.2
	60 or older	110	11	University Student	49	4.9
Displaced Persons in the Family	Yes	109	10.9	Housewife/ Unemployment/ Other	232	23.2
	No	891	89.1	Less than KRW 1 million	21	2.1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ingle	94	9.4	≥ KRW 1 million, < KRW 2 million	95	9.5
	2-person	187	18.7	≥ KRW 2 million, < KRW 3 million	199	19.9
	3-person	295	29.5	≥ KRW 3 million, < KRW 5 million	299	29.9
	4-person	344	34.4	≥ KRW 5 million, < KRW 7 million	198	19.8
	5 or more	80	8	≥ KRW 7 million, < KRW 10 million	126	12.6
				More than KRW 10 million	62	6.2
Total(b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1,000	100

Table 3. Intent to Travel to North Korea via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unit: %)

Category		Cases (persons)	Yes	No
Total		(1000)	64.1	35.9
Those who have traveled abroad for the past 10 years	Yes	(55)	72.7	27.3
	No	(668)	68.7	31.3
	Total	(723)	69.1	30.9
Others		(277)	51.3	48.7

Table 4. Expected Number of Visits Within 5 Years of 'Yes' Respondents

Number of Visits (Times)	1	2	3	4	5	6	7	8	9	10	Total	Total Number of Visits	Number of Visits per Person
Persons	239	244	121	10	20	1	1	1	2	2	641	1,289	2.0

Table 5. Preferred Areas for Tourism in North Korea

(unit: multiple responses, %)

Category	Cases (persons)	Mt. Baekdu (East route)	Samjiyeon	Namyang (Onseongun)	Hoe-ryong City	Cheong-jin City	Mt. Chilbo	Ra-son City	Others
total	(641)	61.6	18.7	8.6	8.4	12.0	14.8	13.9	1.1

(4) 북한 여행시 코스별 선호지역과 여행 양태

① 선호하는 코스

여행지를 코스별로 3개를 구성하여 각각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하였다(Table 6). '백두산과 북한 삼지연 일대'가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국 훈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나선 일대'가 18.9%, '중국 톈문과 북한의 남양, 청진, 칠보산 일대'가 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② 예상 여행 일정

앞에서 선택한 여행지역의 예상 여행 일정을 물어 본 결과 '3박 4일'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

박 5일' 23.9%, '2박 3일' 15.0%, '5박 6일' 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신용석·최경은(2019: 185)의 연구에서는 2박 3일(43.7%), 3박 4일(23.5%) 순으로 높았는데, 본 조사는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길어 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1인당 예상 지출 경비

선택한 여행코스의 1인당 총 여행 경비를 얼마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100~200만원 미만'이 45.1%로 가장 높았고, '50~100만원 미만' 20.1%, '200~300만원 미만' 15.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8).

Table 6. Preferred Course

Category	Cases (persons)	The Area of Mt. Baekdu and Samjiyeon City in North Korea	The Area of Tomun, Yongjeong in China and Namyang, Cheongjin, and Mt. Chilbo in North Korea	The Area of Hunchun and Bangcheon in China, Vladivostok, Hasan and Usurisk in Russia, and Rason in North Korea
Ranking 1 (%)	(641)	71.8	9.4	18.9
Ranking 2 (%)	(641)	17.2	39.8	43.1
Ranking 3 (%)	(641)	11.1	50.9	38.1

Table 7. Itinerary

(unit: %)

Cases (persons)	One Day	One Night 2 Days	2 Nights 3 Days	3 Nights 4 Days	4 Nights 5 Days	5 Nights 6 Days	6 Nights 7 Days	7 Nights 8 Days	Others
(641)	0.6	3.3	15.0	25.1	23.9	13.6	8.7	9.0	0.8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1인당 평균 153.2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여행 동행인 수

선택한 코스를 여행할 때, 응답자본인을 포함해서 동행자를 몇 명 정도로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2명'이 29.8%로 가장 많았고, '3명' 24.0%, '4명' 20.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9).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평균 3.1명으로 나타났다. 동행인 수 평균이 3.1명이라는 것은 관광수요가 응답자 수준을 훨씬 넘어설 수 있음을 말해준다.

⑤ 선호하는 관광 활동

앞의 문항에서 선호하는 관광 활동에 대한 1, 2, 3순위 중복응답으로 집계한 결과, '경관 관광'이 8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먹거리 체험' 65.7%, '휴양·휴식' 60.4%, '역사 탐방' 47.4%, '현지 생활 체험' 33.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0). 경관관광의 선호도가 높은데, 이는 방문희망 개별지역에 대한 문항 응답에서 백두산 방문의사가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용석·최경은(2019)의 조사에서도 북한 방문 시 관광활동 1순위는 '자연경관감상(62.0%)' 이었고 '음식관광(11.5%)'을 '역사문화유적지 방문(14.0%)'에 이어 세 번째로 선호하였다.

3.2 한국인의 관광수요 및 지출규모 추정

3.2.1 수요추정방법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하여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수요를 추정하고자 한다. 방문의향을 방문수요로 보기는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의 방문의향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확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박홍수 외(2005)에 따르면, "분명히 사겠다"는 소비자의 약 90%, "아마도 살 것"이라는 소비자의 약 40%,

Table 8. Estimated Expenditure per Person

(unit: %)

Cases (persons)	Less than KRW 0.5mil.	≥ KRW 0.5mil. and < KRW 1mil.	≥ KRW 1mil. and < KRW 2mil.	≥ KRW 2mil. and < KRW 3mil.	≥ KRW 3mil. and < KRW 5mil.	More than KRW 5mil.	Average (KRW (mil.))
Total (641)	6.2	20.1	45.1	15.1	8.1	5.3	1.532

Table 9. The Number of Companions

(unit: %)

Cases (persons)	Single	2 Persons	3 Persons	4 Persons	Over 5 Persons	Average (Persons)
Total (641)	12.8	29.8	24.0	20.1	13.3	3.1

Table 10. Preferred Tourism Activities during Trip

(unit: %)

Category	Cases (persons)	Appreciation of the Scenery	Food Experience	A Local Life Experience	Resting	Tour of Historical Sites	Shopping	Others
1+2+3 Ranking (multiple response)	(641)	86.1	65.7	33.1	60.4	47.4	7.2	0.2
Ranking 1	(641)	62.9	12.9	6.7	9.5	8.0	-	-

“살지도 모르겠다”는 소비자의 약 10%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다고 보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방문여부 조사를 5점 척도가 아닌 방문 의향에 대해 “있음”, “없음”으로 물었으므로, “있음” 응답자수에 위 3가지 확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⁵⁾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식 (1)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관광의향비율은 향후 5년 이내 관광하겠다는 응답비율을 말하며, 설문 결과 64.1%이다. 실현 확률은 여행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실제 여행할 확률로 정의한다. 박홍수 외(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매의사 강도에 따른 3가지 확률(90%, 40%, 10%)의 평균값 46.7%이다. 이 값들을 적용하면 실제 방문할 확률은 29.9%이다.

$$\text{실제 방문할 확률} = \text{관광의향비율} \times \text{실현 확률} \quad (1)$$

실제 방문할 확률에 연간희망방문 횟수를 곱하면, 조정된 연간 평균 관광횟수, 즉 연간 방문하는 연인원이 된다. 5년 이내 2회 방문한다고 응답하였으므로 연간 희망방문 횟수는 0.4회/명을 적용하면 조정된 연간 평균 관광횟수는 약 0.120회/년·명이다.⁷⁾

$$\begin{aligned} &\text{조정된 연간 평균 관광횟수} \\ &= \text{실제 방문할 확률}(29.9\%) \times \text{연간희망방문 횟수} \\ &\quad (0.4\text{회}) \quad (2) \end{aligned}$$

3.2.2 관광 수요추정

조정된 연간 평균 관광횟수는 1인당 1년에 방문할 횟수이므로, 만 20~64세의 인구수에 이 값을 적용하여 전체 관광수요를 추정한다. 응답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없기 때문에 인구수로 환산할 경우에도 64세까지를 적용하였다.

$$\begin{aligned} &\text{연간 관광 수요(연인원)} \\ &= \text{조정된 연간 평균 관광횟수}(0.120\text{회/년}\cdot\text{인}) \\ &\quad \times \text{만 20}\sim\text{64세의 인구수} \quad (3) \end{aligned}$$

만 20~64세의 인구를 대상으로 관광수요를 추정하면 연간 총 4,136,361회, 즉 연인원 4,136,361명이다(Table 11). 이를 여행 코스별로 보면, ‘백두산과 북한 삼지연 일대’(1코스) 2,968,371회, ‘중국 훈춘,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나선 일대’(2코스) 387,179회, ‘중국 토문과 북한의 남양, 청진, 칠보산 일대’(3코스)가 780,811회이다(Table 12).

한편 개성관광 수요를 조사한 김홍식(2002)의 연구에서는 90만 명, 남성옥 외(2004)의 연구에서는 1,249,500명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추정치의 약 3.3배~4.6배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수요 추정은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의 다수의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면서 북한 관광을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연구보다는 많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⁸⁾ 또한 우리나라 국민해외여행객수가 지속적

5) 박홍수 외(2005)가 제시한 구매의사 응답 보기 5점 척도의 중간값인 ‘살지도 모르겠다’가 ‘방문의향 있음’에 해당한다고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관광수요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 ‘살지도 모르겠다’ 또한 조금이라도 긍정이 포함된 답변으로 보아, 긍정 답변이 실제 행위로 이어지는 확률의 평균 산출에 포함하였음.

6) 박홍수 외(2005)는 응답한 구매확률과 실제 구매확률간에 선형관계가 있다고 하는 연구로 Juster(1966), Morrison(1979) 등을 소개하고 있음.

7) ‘여행하지 않겠다’는 응답자(35.9%) 중 실제로는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확률을 도출하여 반영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8) 실제 진행되었던 개성과 금강산 관광객수는 가장 많았던 해는 2007년 연간 약 35만 명임(통계청, “계성, 금강산 관광객 수”, 2022.7.1. 읽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3&tblId=TX_10301_A002&conn_path=%2012).

이 값은 개성과 금강산만을 방문한 관광객 수입. 본 연구는 백두산, 라선, 청진, 삼지연, 연길, 블라디보스토크 등 주요 관광지가 포함된 국내의 관광이고, 제도적 제약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방문의향을 질문한 것이므로 실제관광객수와 비교하기는 곤란함.

Table 11. Estimation of Tourism Demand (Annual)

Adjusted Average Number of Tours per Year	the Population Aged 20 to 64*	Annual Tourism Demand
0.120 times/person	34,569,540 person	4,136,361 times

Note: The number of registered residents is as of December 2020

Source: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Accessed Jan. 24, 2022)

Table 12. Estimation of Tourism Demand (Annual) by Course

Demand \ Course	Course 1	Course 2	Course 3
Annual Tourism Demand (times)	2,968,371	387,179	780,811

로 증가하고 있는데⁹⁾, 중국 및 러시아를 경유한 북한 여행에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3.2.3 여행기간동안 총 지출액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1인당 1회 지출액 153.2만 원을 연간관광수요에 곱하면 여행기간동안 총 지출액은 연간 약 6조 3369억원이다.

$$\text{총지출액} = \text{연간 관광 수요} \times \text{1인당 1회 지출액} \quad (4)$$

4. 관광지출이 북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추정

본 설문조사에서 관광지역을 3개의 코스로 구성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3개 코스에 대해 1순위로 응답한 비율만을 대상으로 북한지역을 방문하여 지출하는 여행비용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한다.

4.1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

관광객이 한 지역을 여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지출된 만큼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유발하고 이

는 다시 관련된 산업들로 후방 연계효과를 내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출로 인한 산업경제 전반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에서의 산업연관표는 한 나라 또는 한 지역 경제의 구조가 구체적이며 종합적으로 담긴 것이며, 각종 투자사업들 경제활동들의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데에 널리 이용된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광지출로 인한 경제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도 산업연관분석이 수차례 활용되고 있다.

앞 절에서 도출한 코스별 북한지역 연간 관광비용은 북한에서의 제반 관광 서비스와 재화를 구매하는 데에 지출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산업 전분야에 후방연관효과로 이어져, 산업별 생산액을 증대시키며 추가 취업자수를 유발하게 된다. 지역경제의 유발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산업연관과, 매출액 대비 고용이 반영된 산업연관표와 취업계수가 필요하다. 북한은 이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북한 산업 구조를 이용하여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된 신통

9) 국민 해외여행객수는 2004년 882.6만 명, 2019년 2,871.4만 명으로 3.25배 이상 증가함(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 해외여행객수”, 2022.2.16. 읽음.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5).

천 외(2014)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을 12개로 분류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수출·수입 데이터와 산업 생산 관련 북한 자체의 보도 등을 감안한 연구들을 활용하여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Table 13, 14는 이 선행연구 결과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한 것이다.

신동천 외(2014)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취업유발효과 추정을 위해서, 최지영(2015)의 연구결과

를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 후자는 산업분류에서 화학공업, 요업, 일차금속, 금속제품, 기계·전자, 기타 제조업을 중공업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공업 취업계수가 하위 분류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아래 Table 15는 최지영(2015)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도출한 취업유발계수이다.

이들의 연구는 양강도와 함경북도에 국한하지 않은 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것이 각 관광코스를 포함하는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Table 13.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North Korea

Categor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Mining	Light Industry	Chemical industry	Ceramics	Primary Metal	Metal Products	Mechanical and Electronic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Electricity, Gas and Water	Construction	Servic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1.4885	0.0382	0.9776	0.0813	0.0961	0.0509	0.0425	0.0551	0.1094	0.0373	0.0955	0.2873
Mining	0.2435	1.2589	0.2352	0.4556	0.1956	0.3465	0.0984	0.0736	0.0647	0.6607	0.0811	0.1780
Light Industry	0.8174	0.0915	2.5022	0.1975	0.2317	0.1206	0.1045	0.1357	0.2769	0.0886	0.2342	0.6422
Chemical Industry	0.0812	0.0399	0.0989	1.1795	0.1208	0.0583	0.0400	0.0477	0.0596	0.0548	0.0610	0.0644
Ceramics	0.0054	0.0163	0.0062	0.0124	1.1706	0.0262	0.0182	0.0103	0.0089	0.0119	0.0957	0.0086
Primary Metal	0.0078	0.0180	0.0096	0.0184	0.0795	1.5818	0.2397	0.0569	0.0344	0.0185	0.0396	0.0099
Metal Products	0.0089	0.0260	0.0103	0.0183	0.0471	0.0679	1.2011	0.0411	0.0288	0.0262	0.0360	0.0102
Mechanical and Electronic	0.0886	0.1650	0.1024	0.0998	0.1966	0.2205	0.2387	1.5104	0.1783	0.2004	0.1927	0.1214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0.0019	0.0016	0.0033	0.0020	0.0067	0.0033	0.0032	0.0055	1.0649	0.0021	0.0031	0.0053
Electricity, Gas and Water	0.0995	0.0896	0.1067	0.0517	0.0771	0.1018	0.0423	0.0410	0.0280	1.1855	0.0396	0.1147
Construction	0.0130	0.0176	0.0137	0.0092	0.0080	0.0137	0.0062	0.0084	0.0045	0.0186	1.4955	0.0783
Service	0.1280	0.0798	0.1477	0.0626	0.0724	0.1116	0.0549	0.0714	0.0469	0.0894	0.1182	1.2880
Total												
Backward Linkage Effect	2.9837	1.8424	4.2138	2.1883	2.3023	2.7031	2.0897	2.0570	1.9056	2.3939	2.4921	2.8084

Source: Based on the IO table of Shin et al. (2014). (in Korean)

Table 14.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of North Korea

Categor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Mining	Light Industry	Chemical industry	Ceramics	Primary Metal	Metal Products	Mechanical and Electronic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Electricity, Gas and Water	Construction	Servic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5714	0.0146	0.3753	0.0312	0.0369	0.0195	0.0163	0.0211	0.0420	0.0143	0.0367	0.1103
Mining	0.1246	0.6442	0.1204	0.2331	0.1001	0.1773	0.0503	0.0377	0.0331	0.3381	0.0415	0.0911
Light Industry	0.0534	0.0060	0.1635	0.0129	0.0151	0.0079	0.0068	0.0089	0.0181	0.0058	0.0153	0.0420
Chemical industry	0.0242	0.0119	0.0294	0.3511	0.0360	0.0174	0.0119	0.0142	0.0178	0.0163	0.0182	0.0192
Ceramics	0.0020	0.0061	0.0023	0.0046	0.4389	0.0098	0.0068	0.0039	0.0034	0.0045	0.0359	0.0032
Primary Metal	0.0016	0.0037	0.0020	0.0038	0.0162	0.3227	0.0489	0.0116	0.0070	0.0038	0.0081	0.0020
Metal Products	0.0027	0.0078	0.0031	0.0055	0.0142	0.0204	0.3613	0.0124	0.0087	0.0079	0.0108	0.0031
Mechanical and Electronic	0.0362	0.0675	0.0418	0.0408	0.0804	0.0901	0.0976	0.6175	0.0729	0.0819	0.0788	0.0496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0.0004	0.0003	0.0006	0.0004	0.0012	0.0006	0.0006	0.0010	0.1979	0.0004	0.0006	0.0010
Electricity, Gas and Water	0.0308	0.0277	0.0330	0.0160	0.0239	0.0315	0.0131	0.0127	0.0087	0.3672	0.0123	0.0355
Construction	0.0054	0.0073	0.0056	0.0038	0.0033	0.0057	0.0026	0.0035	0.0019	0.0077	0.6185	0.0324
Service	0.0530	0.0330	0.0612	0.0259	0.0300	0.0462	0.0227	0.0296	0.0194	0.0370	0.0489	0.5334
Total	0.9056	0.8301	0.8383	0.7291	0.7962	0.7491	0.6390	0.7739	0.4308	0.8848	0.9255	0.9227
Backward Linkage Effect												

Source: Based on the IO table of Shin et al. (2014). (in Korean)

4.2 북한지역에서의 지출액 도출

설문에서 응답된 여행비용은 항공료를 포함하여 개별 코스 전체의 관광에 대한 비용이다. 여기서 북한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려면, 우선 북한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Table 16).

우선 1코스에서는 백두산과 삼지연시를 집중 방문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앞서 도출한 여행

경비 중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부분의 80%를 북한지역에서 지출될 비용으로 가정하였다. 80%로 설정한 것은 다소 보수적인 접근으로, 1코스는 일단 중국의 연길공항 등을 통해 접근할 것이고 주로 북한지역을 관광하지만 중국 내에서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광 비용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¹⁰⁾ 항공료는 예약 시점, 항공사, 패키지 관광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여행사들

10) 평균 4.78일의 1코스 여행기간 중 중국 내에서 이동 및 체류는 만 하루 이내로 가정하며, 중국과 북한에서의 비용 지출은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함.

Table 15.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of North Korea

(unit: persons/\$100million)

Categor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Mining	Light Industry	Chemical industry	Ceramics	Primary Metal	Metal Products	Mechanical and Electronic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Electricity, Gas and Water	Construction	Servic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104643.1	2682.3	68726.6	5712.6	6756.1	3576.1	2988.4	3872.0	7692.3	2619.8	6714.1	20197.6
Mining	6039.9	31221.2	5833.2	11297.8	4852.1	8592.5	2439.8	1826.1	1605.2	16386.6	2011.9	4414.8
Light Industry	24357.4	2726.0	74565.5	5884.4	6904.9	3594.5	3115.3	4042.4	8253.1	2638.9	6977.8	19137.7
Chemical Industry	1972.4	968.4	2404.2	28662.8	2936.2	1416.5	972.7	1159.9	1449.5	1332.5	1482.1	1564.1
Ceramics	130.3	397.3	151.0	301.0	28446.3	636.9	443.4	249.9	217.4	289.1	2325.3	209.6
Primary Metal	188.8	437.1	234.4	447.2	1932.9	38438.8	5823.8	1382.9	835.7	450.1	962.5	240.6
Metal Products	215.3	632.0	249.1	445.8	1144.6	1649.2	29186.5	998.0	700.7	635.8	875.0	247.2
Mechanical and Electronic	2152.6	4010.4	2487.3	2425.0	4778.0	5357.7	5799.5	36702.8	4332.8	4868.7	4681.8	2950.6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46.1	40.1	80.3	48.8	162.4	80.9	77.6	133.4	25878.3	50.1	75.2	129.6
Electricity, Gas and Water	1104.7	994.4	1184.2	574.1	855.3	1130.4	470.1	454.7	310.6	13159.2	439.8	1273.4
Construction	125.2	168.8	131.1	88.0	77.1	131.8	59.3	80.6	43.4	179.0	14356.6	752.0
Service	6504.9	4052.2	7504.1	3179.8	3676.9	5667.1	2788.5	3625.7	2383.7	4540.5	6004.4	65430.8
Total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147,480.7	48,330.2	163,551.1	59,067.5	62,522.5	70,272.3	54,165.0	54,528.7	53,702.7	47,150.3	46,906.5	116,548.1

Note: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of North Korea is very high compared to that of South Korea. As of 2020, South Korean employment/gross domestic product was 13.9 persons/billion won, and North Korea had 351.5 persons/billion won which is about 25 times that of South Korea.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difference in economic size and level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ppears as a result of this.

Source: Based on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of Choi (2015). (in Korean)

Applying the coefficient value of heavy industry to chemical industry, ceramics, primary metal, metal products machinery-electronics, and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equally.

에서 제공하는 백두산 지역의 패키지 여행상품 사례로 항공료를 산출하였다.¹¹⁾ 이에 따라 1코스의 1인당 평균 여행비용 1,448천원 중 북한지역에서 지출되는 1인당 평균 경비는 802천원으로 추산된다. 앞

서 도출한 1코스의 연간 관광수요 2,968천인을 적용하면 1코스 관광에 대해 북한지역에서 지출되는 연간 관광비용은 2,382십억원이다.

2코스 관광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을 동일한 논리

11) 여기서 주요 여행사는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7개이며, 이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2022년 4월 21일 기준) 백두산 여행 패키지 관광 상품(4~5일)을 조사하였다. 여행업계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패키지 관광비용 중 항공료의 비중은 50%로 설정하였음(대략 4일 내의 여행기간 기준이며, 여행기간이 길어지면 항공료의 비중은 낮아짐).

Table 16. Derivation of Tourism Expenditure in North Korea by Course (Annual)

Course	(Calculation Formula)	1	2	3	Sum or Average
The Number of Ranking 1 Responses (persons)		460	60	121	641
Response Ratio		71.8%	9.4%	18.9%	100.0%
Average Travel Period (days)		4.78	5.28	5.36	4.94
Ratio of Stay Period in North Korea (%)	A	80%	60%	17%	
Average Travel Cost (KRW 10,000, per person)	B	144.8	173.5	174.8	
Round-Trip Airfare Estimate (KRW 10,000, per person)	C	44.5	44.5	54.1	
Average Travel Cost Excluding Airfare (KRW 10,000, per person)	D = B - C	100.3	129.0	121.7	
Average Travel Expenditure in North Korea (KRW 10,000, per person)	E = B × A	80.24	77.41	20.12	
Annual Tourism Demand (times/year)	F	2,968,371	387,179	780,811	4,136,361
Annual Tourism Expenditure in North Korea (KRW 100 million)	G = E × F	23,819	2,997	1,571	

로 산출하였다. 다만 2코스에서 제시된 주요 관광지 5곳 중 3곳(남양, 청진, 칠보산)이 북한에 속하므로 항공료를 제외한 관광지출 중 60%가 북한에서 쓰인다고 가정하였다. 2코스의 1인당 평균 여행비용 1,735천원 중 북한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774천원으로 산출된다. 이 결과에 2코스의 연간 관광수요 387천인을 곱하면 2코스 관광에 대해 북한지역에서 지출되는 연간 관광비용은 300십억원이다.

3코스의 북한 관광 지출액 산출도 유사한 경로로 수행하였다. 3코스에서 제시된 주요 관광지 6곳 중 나선시 한 곳만이 북한에 포함되므로, 항공료를 뺀 관광지출 중 약 17%가 북한에서 쓰인다고 보았다.¹²⁾ 3코스의 1인당 평균 여행비용 1,748천원 중 북한에서 쓰이는 부분은 201천원이다. 3코스 방문 수요는 연간 약 781천인이므로, 3코스 북한지역 연간 관광비용 지출은 157십억원이다.

4.3 북한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관광비용은 보통 숙박비, 식료비, 교통비, 기념품 등의 쇼핑비 등에 쓰이며, 신동천 외(2014)의 산업 분류에서 서비스부문에 해당한다. 아래 표들은 각 관광코스별로 분석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1코스의 연간 관광지출 2,382십억원이 북한 지역경제에 파급하는 경제효과로서, 총생산유발효과는 연간 6,689십억원, 부가가치는 연간 2,198십억원, 고용창출은 연간 2,425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Table 17). 300십억원의 북한지역 연간 관광 지출이 예상되는 2코스에 대해서는 총생산유발효과는 연간 842십억원, 부가가치는 연간 277십억원, 고용창출은 연간 305천명에 이른다(Table 18). 3코스의 관광객이 북한에 지출하는 연간 비용 157십억원으로 인해 총생

12) 3코스의 항공료는 1코스, 2코스와는 달리 연길 등 중국 공항이 아닌 블라디보스토크의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여행사 관광상품 조사를 블라디보스토크 패키지 관광상품(4~5일)을 대상으로 함.

Table 17. The Effects of Expenditure on Tour Course 1 on the Regional Economy of North Korea (Annual)

Industry Classification	Tourism Expenditure (KRW 100 million)	Total Production Inducement (KRW 100 million)	Value-Added Inducement (KRW 100 million)	Employment Inducement (person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00	6,843.24	2,626.77	420,304
Mining	0.00	4,240.09	2,169.73	91,870
Light Industry	0.00	15,296.47	999.79	398,248
Chemical industry	0.00	1,533.14	456.35	32,549
Ceramics	0.00	205.46	77.03	4,362
Primary Metal	0.00	235.80	48.10	5,006
Metal Products	0.00	242.33	72.89	5,145
Mechanical and Electronic	0.00	2,892.19	1,182.35	61,402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0.00	127.04	23.61	2,697
Electricity, Gas and Water	0.00	2,732.46	846.24	26,499
Construction	0.00	1,865.78	771.69	15,649
Service	23,818.64	30,678.61	12,704.02	1,361,588
Total	23,818.64	66,892.61	21,978.57	2,425,317

Table 18. The Effects of Expenditure on Tour Course 2 on the Regional Economy of North Korea (Annual)

Industry Classification	Tourism Expenditure (KRW 100million)	Total Production Inducement (KRW 100million)	Value-Added Inducement (KRW 100million)	Employment Inducement (person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00	861.04	330.51	52,884
Mining	0.00	533.51	273.00	11,559
Light Industry	0.00	1,924.66	125.80	50,109
Chemical industry	0.00	192.91	57.42	4,095
Ceramics	0.00	25.85	9.69	549
Primary Metal	0.00	29.67	6.05	630
Metal Products	0.00	30.49	9.17	647
Mechanical and Electronic	0.00	363.91	148.77	7,726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0.00	15.99	2.97	339
Electricity, Gas and Water	0.00	343.81	106.48	3,334
Construction	0.00	234.76	97.10	1,969
Service	2,996.96	3,860.11	1,598.47	171,320
Total	2,996.96	8,416.70	2,765.43	305,163

산유발효과는 연간 441십억원, 부가가치는 연간 145십억원, 고용창출은 연간 160천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9).

4.4 소결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하면 Table 20과 같다.

북한지역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출

은 총관광지출액 6조 3,369억원 중 2조 8,387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지역에서 관광지출의 총생산유발효과는 7조 9,72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 6,194억원, 고용유발은 약 2,890,443명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¹³⁾의 약 7.6%에 달한다.

Table 19. The Effects of Expenditure on Tour Course 3 on the Regional Economy of North Korea (Annual)

Industry Classification	Tourism Expenditure (KRW 100million)	Total Production Inducement (KRW 100million)	Value-Added Inducement (KRW 100million)	Employment Inducement (person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0.00	451.35	173.25	27,721
Mining	0.00	279.66	143.10	6,059
Light Industry	0.00	1,008.88	65.94	26,267
Chemical industry	0.00	101.12	30.10	2,147
Ceramics	0.00	13.55	5.08	288
Primary Metal	0.00	15.55	3.17	330
Metal Products	0.00	15.98	4.81	339
Mechanical and Electronic	0.00	190.76	77.98	4,050
Other Manufacturing Industries	0.00	8.38	1.56	178
Electricity, Gas and Water	0.00	180.22	55.81	1,748
Construction	0.00	123.06	50.90	1,032
Service	1,570.97	2,023.42	837.90	89,804
Total	1,570.97	4,411.92	1,449.60	159,963

Table 20. Summing up the Effect of Tourism Expenditur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Annual)

By Course	Expenditure in North Korea (KRW 100million)	Total Production Inducement (KRW 100million)	Value-Added Inducement (KRW 100million)	Employment Inducement (persons)
Course 1	23,818.64	66,892.61	21,978.57	2,425,317
Course 2	2,996.96	8,416.70	2,765.43	305,163
Course 3	1,570.97	4,411.92	1,449.60	159,963
Total	0	0	0	0

13) 2020년 북한 명목 GDP는 34,660.3십억원임(출처: 통계청 북한통계 주요지표).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북한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 지출액을 도출하여, 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중국 또는 러시아 지역을 경유하는 북한 여행(방문)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향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여행(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약 64.1%가 방문하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방문의사를 기초로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하는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수요를 도출한 결과 한국인의 관광수요는 연간 연인원 4,136,3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선행연구의 추정 값과 유사하여, 본 연구의 추정 값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153만 2천원, 총 지출액은 6조 3,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지출액 중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후 방문지역마다 균등하게 지출한다는 가정 하에, 북한지역에 지출될 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2조 8,3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액이 미칠 북한 지역경제 후방파급효과를 북한지역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총생산유발은 7조 9,721억원, 부가가치유발은 2조 6,194억원, 고용유발은 약 2,890,443명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수요가 선행연구나,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수요 변화 등을 고려시 타당한 값으로 보여, 제3국을 경유한 한국인의 북한방문의 수요는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으로 검토할 만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백두산관광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인의 북한관광에 따른 지출은 북한지역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의 약 7.6%에 달할 정도로 크다. 북한 당국입장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평소 북한 관광객의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재개 시 북한의 관광수입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여건이 개선된다면 북한 관광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2015년 삼지연시 무봉노동자구에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지정하였다. 이 특구는 북한과 합영합작을 금지하는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2375호) 발효 전까지는 북·중 합영회사의 중국 측 파트너 주도로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봉관광특구는 천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코스인 백두산 동파와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 향후 한국인 해외여행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더불어 한국인의 북한관광 수요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설문조사에서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북한관광 의향이 높았다.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철도, 도로, 관광시설 등 관광인프라 개발이 남북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추정한 북한관광수요가 북한방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한 것이므로 실제 관광수요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방문 경험자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 대해 방문의향을 조사한 것이어서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요를 추정했지만 과다추정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과소추정 가능성도 있다. 즉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한 수요추정 시, ‘여행하지 않겠다’는 응답자(35.9%) 중 실제로는 방문하는 사람들

도 있을 수 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65세 이상도 응답자에 없어 포함시키지 않았고, 여행 시 동행자가 평균 3.1명이라고 응답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실제 관광이 가시화 될 경우 유사한 연구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봉·이승복·김은정·김갑성(2009),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파급효과 분석”, 『지역연구』, 25(4): 65~82.
- 김형태·채정민·조영아(2016), “북한 천연가스사업과 석탄산업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공학』, 25(3): 1~8.
- 김홍식(2002), “육로관광을 통한 남북한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협력기반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남성욱·박현선·이영희·정순원·노병춘·최지영·허지연·신예정(2004), 『개성공단 개발 대비 체계적 개성관광 육성 방안』, 서울: 한국관광공사.
- 남은경·이승곤(2021), “북한관광의 위험지각에 따른 행동의도 연구: 북한관광의 중요성 인식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55~70.
- 노희경(2021), “북한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 동기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33(2): 45~62.
- 문유진(2018), “남북관광의 현황분석과 가능성-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485~499.
-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6), 『관광수요예측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서울: 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박근수(2018), “북한관광의 현황과 남북한 문화관광협력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문화』, 94: 231~249.
- 박근영·김근중·송주완(2019), “대학생의 가치관에 따른 통일인식과 북한관광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5(1): 181~192.
- 박홍수·하영원·우정(2005), 『신상품마케팅』, 서울: 박영사.
- 배준호·이재형(2018), “한반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북한관광 상품 분석: 한국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0(10): 459~475.
- 송운강·이혜진(2018), “제주도 관광수요 특성과 예측”, 『Tourism Research』, 43(4): 111~124.
- 신금선(2020.12.11), “北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 목표일 8개월 지나도록 ‘감감’”. SPN 서울평양뉴스.
- 신동천·이혁·김용균(2014), “북한의 산업연관표와 북한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 『통일연구』, 18(2): 37~65.
- 신석하·김영준(2018), “남북경협 직접적 경제효과 분석: 개성공단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44(3): 43~66.
- 신용석·최경은(2019), 『신남북관광협력의 정책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신정화(2010),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4(2): 133~158.
- 안현영·김미경(2018), “남북한 관광 협력을 위한 관광 ODA 효과에 대한 인식 연구: 관광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관광경영연구』, 22(5): 383~402.
- 윤인주(201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북한연구학회보』, 19(1): 93~123.
- 이해정·강성현(2020), “문헌으로 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국가전략』, 26(3): 151~178.
- 장동석(2018), “통일인식과 북한관광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학회』, 132(9): 111~122.
- 장동석·고계성(2014), “북한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연구”, 『관광연구저널』, 28(7): 75~86.
- 채종훈(2015), “남북한금강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19(1): 153~174.
- 최대식(2019), “삼지연군 건설사업리뷰”, 『북한토지주택리뷰』, 3(1): 44~53.
- 최지영(2012), “시장확산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북한경제리뷰』, 14(4): 61~76.
- 최지영(2015),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정과 활용”, KIEP 북한연구회 세미나.
- 통계청, “e-나라지표 국민 해외여행객수”, 2022.2.16. 읽음.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5.
- 통계청, “개성, 금강산 관광객 수”, 2022.7.1. 읽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3&tblId=TX_10301_A002&conn_path=%20I2.
- 통계청, “북한통계 주요지표”, 2022.2.16. 읽음.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

- menuId=M_01_02&listNm=%EA%B5%AD%EB%AF%BC%EA%B3%84%EC%A0%95.
31. 통계청, “인구”, 2022.1.24. 읽음.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32. 통일부(2020), “2020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서울.
 33. 한국은행(1999), “금강산관광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
 34. Choi, J. Y. (2015), “A Study on Estimation of the Input-Output Table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KIEP Seminar of North Korea Research Association*. (in Korean)
 35. Juster, F. T. (1966), “Consumer Buying Intentions and Purchase Probability : An Experiment in Survey Design”,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1: 689; 박흥수 외(2005)에서 재인용.
 36. Morrison, D. G. (1979), “Purchase Intention and Purchase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43(2) (Spring): 72; 박흥수 외(2005)에서 재인용.
 37. Shin, D. C., H. Lee and Y. K. Kim (2014), “The Construction of the Input-Output Table of North Korea and the Linkage Effects of North Korean Industries”, *Korean Unification Studies*, 18(2): 37~65. (in Korean)

요 약

본 연구는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을 경유한 북한관광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를 추정하고, 북한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출액을 도출하여, 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북한 방문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향후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약 64.1%가 방문하겠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방문의사를 기초로 마케팅분야의 구매의도분석을 적용하여 수요를 도출한 결과 관광수요는 연간 연인원 4,136,361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153만 2천원, 총지출액은 6조 3,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 중에서 항공료를 제외한 후 방문지역마다 균등하게 지출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지역에 지출될 금액을 추정해 본 결과 2조 8,38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지출액이 북한 지역경제에 미칠 후방파급효과는 총생산유발 7조 9,721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 6,194억원, 취업유발 약 2,890,443명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한국은행이 추계한 2020년 북한 명목 GDP의 약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북한관광에 따른 지출은 북한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북한관광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건이 개선된다면, 북한 관광인프라개발을 위한 남북협력도 필요하다.

주제어 : 북·중 및 북·중·러 접경지역, 한국인의 북한 관광수요, 관광지출, 북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백두산관광